

## “문제는 시장성의 포인트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와 《희망의 누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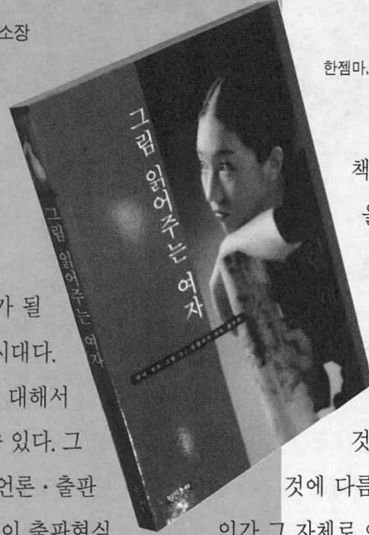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오늘날은 누구나 책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시대다. 또한 ‘한권의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교육·문화·언론·출판계에 종사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판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편협한 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 결과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품 생산은 활발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는 팔리는 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폄하하려는 습성이 있다. 숨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일에 정진하는 것도 상찬(賞讚)받아 마땅하지만, 일관된 노력에 의해 ‘시장성’을 창출하는 것 또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시장성만 부나비처럼 좇아가는 것은 문제지만, 시장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가 그런 상품이 다가왔을 때 시장성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출판인들을 지배해온 구조주의적이고 이상적인 출판관은 결국 개별 출판상품과 출판기업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왔다.

### 독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서점에 진열된 ‘한권의 책’은 독자들이 접어드는 순간 ‘아우라’(aura)가 발생한다. 그 책이 그대로 먼지만 뒤집어쓰다가 폐지로 전락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독자가 선택해 의미를 발생시키는, 팔리는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다. 책을 ‘직접’ 만드는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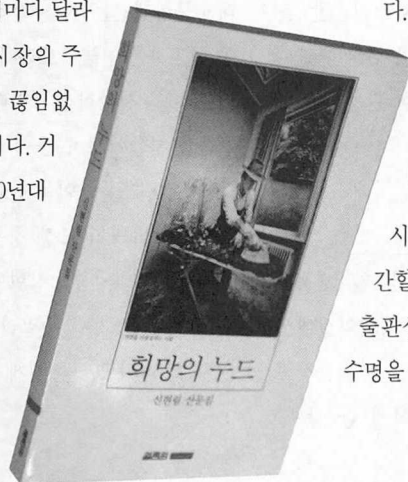
한젠마, 《그림 읽어주는 여자》, 명진출판

책을 찾는 이유, 독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준거가 무엇인지를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찾아야 한다. 이런 노력은 독자를 일률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는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몇가지 마케팅 기술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독자들이 책을 소비하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왜 이 책을 소비하려드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어느 시대고 통하는 영원성이 담긴 ‘한권의 책’의 시대적 유효성이 무엇인지를, 왜 ‘지금 여기’에서 그 책이 유효한지를 찾는다. 베스트셀러는 바로 시대의 상(相)과 영원의 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접점을 관통하는 책이다. 따라서 마케팅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통찰”과 “현시대에 대한 세밀한 실증적 이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이해하는 일이 된다.

그 접점이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은 독서시장의 주류독자들 의식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70년대



신현림, 《희망의 누드》, 열림원

후반, 80년대, 90년 초반, 세기말에 이르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어는 산업화, 역사성, 개인주의, 정체성의 혼란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독자도 70년대에는 주로 여고를 졸업한 20대 전후의 직장여성이었다면, 80년대에는 같은 연령의 여대생으로 바뀌었다. 90년대 초반에는 여기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90년대말에는 다시 40대 초반의 여성이 주류독자로 추가됐다.

###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가 키워드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이 주류독자에 편입된 바로 이 시대의 출판시장에서 시장성의 포인트는 전문적(special)인 영역과 일반적(general)인 영역이 절묘하게 만나는 접점이다. 70년대 초반 호스티스 소설과 감각적인 에세이나 시가 대중독자의 출현을 알렸다면, 이 시대에는 주류독자들의 다분히 고급한(?) 취미에 맞고 지적인 만족을 주는 책들이어야 비로소 시장성을 갖는다.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 재미와 품격의 겸비는 바로 이 시대 시장성의 키워드인 것이다.

명진출판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한젠마)는 ‘국내 최초의 그림 DJ’로 지칭되는 저자가 그림 읽기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수록된 그림을 선택하는 것에서 저자의 전문적인 안목이 드러나지만, 그림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와 욕구를 포착하고 풀어내는” 안내자의 친절한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돋보이는 책이다.

열림원의 《희망의 누드》(신현림)는 시인이자 현재 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는 저자가 국내외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사진 읽기의 지평을 넓혀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시인의 감성이 돋보이는 산문을 통해 시인의 일상과 내면세계가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두 책처럼 전문적인 영역과 일반적인 영역이 조화를 이루는 책의 출간은 앞으로 붓물 터지듯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처럼 시장성의 포인트에 맞는 책을 꾸준히 출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출판기업과 출판상품의 목숨을 부지시킬 뿐만 아니라 수명을 늘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